

FACT SHEET: 일한 문화·인적 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 제언의 주요 포인트

제목: 문화·인적 교류를 위한 ‘일한 모델’의 추진을

【지식인 회의의 성격】

- 1998 년의 ‘일한 파트너십 선언’ 20 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·인적 교류 및 미래지향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이념과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.
- 의장인 곤도 세이치 전 문화청 장관과 일한 관계에 정통한 지식인 5 명, 총 6 명이 핵심 멤버이다. 여기에 다른 전문가들을 초청해 8 월과 9 월에 걸쳐 세 번의 회의를 가졌다. 고노 타로 외무대신도 모든 회의에 참석했다.

【기본 인식】

- 근래 20 년 동안 일한 간 무역 총액은 2 배 이상, 인적 교류는 3 배 이상 늘었다. 양국 관계는 여러 현안을 안고 있으면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.
- 과거 한 때 불행한 관계에 놓여 있던 두 나라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함께 번영하고 있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. 50 년 넘게 꾸준히 쌓아온 이 관계는 더욱 성숙해짐으로써 ‘일한 모델’로서 후세와 전 세계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.
- 국가 간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상대국에 있는 지인, ‘개인의 얼굴’을 바로 떠올릴 수 있다면 불필요한 반감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.
- 국민 간 상호 인식의 개선에는 시간이 걸린다. 끈기 있게 우호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.

【교류 사업에 대한 제언】

- 양국 간 정치·외교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도 민간과 지역 간 교류는 지속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.
- 50 년간 800 만 명 규모의 청소년 교류를 실시한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노력을 참고해 청소년 교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. 나아가 오피니언 리더 층의 교류 사업 강화도 필요하다.
- 상대국에서의 취직을 희망하는 양국 젊은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내실 있게 확정해야 한다.
- 한국에서 일본 요리의 보급을 담당하는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, ‘식(食)’과 관련한 외국인의 일본 연수와 취업 기회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바람직하다.
- 저출산 고령화와 소득 격차 확대 등, 공통된 과제와 씨름하는 양국의 NGO 와 NPO 가 협력할 수 있도록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칭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.
- 일한 양국을 ‘하나의 여행지(목적지)’로 여기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양국 관광 당국의 연계에 힘을 쏟아야 한다.

(끝)